

신라하대 합천 치인리 마애불입상 연구

지강이*

- I. 머리말
- II. 현상 및 양식적 특징
 - 1. 현상
 - 2. 양식적 특징
- III. 치인리상과 신라하대 아미타불상의 수인
 - 1. 신라하대 아미타불상 수인의 특징
 - 2. 아미타불상 수인의 변화
- IV. 해인사와 제작 목적
 - 1. 해인사 관련 제작 배경
 - 2. 제작 목적
- V. 맺음말

I. 머리말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에 있는 마애불입상은 현재 보물 2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¹ 광배와 불신을 같은 돌에 새긴 단독 입상이다.² 상의 위치는 해인사 북쪽 계곡(일명 극락골)을 돌아 상왕봉으로 가는 길 중간인³ 해발고도 약 960m 지점의 높은 곳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 동아대학교 강사

1 내용에 따라 '치인리 마애불', '치인리 불상', '치인리상'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2 단독입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애불로 불려졌던 것은 상이 크고 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洪光杓·金龍基·白蘭影, 「伽倻山 海印寺의 立地性에 관한 연구」, 『佛敎學報』33(佛敎文化研究院, 1996), p. 221.



도 1 치인리 마애불입상, 통일신라, 전체높이 750cm, 보물 222호, 합천군 가야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현재 치인리 불상의 현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8m에 가까운 거대한 크기가 주는 장중함과 우수한 조형성 등에서 통일신라기의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불상은 해인사 경내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해인사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 상 해인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해인사는 802년 의상의 손제자인 순응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신라시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화엄종 사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왕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이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하였으며,⁴ 또 한 구의 석조여래입상도 전한다.⁵ 모두 9세기의 작품들로서 당시 해인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 동안 치인리 불상에 대해서는 개설서에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 뿐 본격적인 독립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연구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해인사 경외의 산속 깊숙한 곳에 거대한 불상이 안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점 해결을 위해 먼저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여 치인리상의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1, 3지 즉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는 수인을 근거로 치인리상의 존명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인사의 불교사적 위치를 파악하여 치인리상의 제작 배경 및 목적도 살펴보고자 한다.

4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4(신라사학회, 2005), pp. 302-308;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70(한국미술사학회, 2011), pp. 10-12. 이 외 이 목조비로자나불상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강우방, 「海印寺 木造毘盧遮那佛像考」, 김상현, 「9세기 후반의 해인사와 신라왕실 후원」, 박상진,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의 재질과 제작연대 분석」, 남풍현, 「중화삼년에 조성한 해인사 불상의 내면 묵서 해독」등으로 이는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에 수록되어 있다.

5 현재 보물 제 26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210cm이다. 두부와 신부는 떨어져 있었으나 복원된 상태이고 발, 대좌, 광배는 결실되어 있다.

6 韓國佛敎研究院, 『海印寺』(一志社, 1975), p. 66; 한국문화유산답사학회 엮음, 『가야산과 덕유산』(돌베개, 2000), p. 88; 최성은 글, 안장현 사진,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한길아트, 2003), pp. 217-218.

II. 현상 및 양식적 특징



도 2 치인리 마애불입상의 발 부분

이 평지는 약 30m² 정도이며 후대에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불상 주변에 기와편이 확인되어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

불신의 전체 높이는 약 750cm이며, 전체 폭 320cm, 두께는 약 60cm의 거대한 암석에 광배와 불신을 함께 새겼다(도 1). 현재 대좌와 발은 없어졌지만 발은 대좌 위에 따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2).⁹

불상은 얼굴에 비해 몸이 긴 편이며 당당한 어깨와 방형의 얼굴,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이 특징이며 두꺼운 대의가 길게 내려와 전체적으로 중량감이 느껴진다. 소발의 머리에 육



도 3 치인리 마애불입상의 상호

치인리 마애불은 가야산 중간 지점인 중봉에 해인사를 바라 보는 남서향에 위치하고 있다.⁷ 즉 해인사의 용담선원 옆의 계곡 길을 따라 북쪽의 상왕봉으로 올라가는 길의 중간지점으로 해인사 법당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올라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의 외길이지만 상이 위치한 곳은 어느 정도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불상의 바로 뒤쪽에는 큰 암반이 놓여 있다.

계는 넓으면서 높은 편이다. 방형의 큰 얼굴에는 눈동자까지 표현한 옆으로 긴 눈과 높으면서도 넓은 코, 작은 입과 두툼한 인중에 무표정한 느낌이다. 이중의 턱과 삼도가 있는 굵고, 짧은 목, 귀는 길어 거의 어깨에 닿을 듯한데 명확한 왼쪽 귀와 달리 오른쪽 귀는 흔적만 보인다(도 3).¹⁰

당당하면서도 길쭉한 신체에는 통견의 대의를 걸쳤는데 자연스럽게 늘어진 옷주름과 잘 조

7 전설에 의하면 해인사가 舟形이고, 절의 원만한 경경을 위하여 사공의 우두머리로서 치인리상을 세웠다고 한다. 韓國佛敎研究院, 앞의 책, p. 66. 비록 전설이기는 하지만 치인리상은 해인사의 가장 선단에 위치하며 또한 해인사를 바라보고 있어 해인사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8 기와는 모두 조선시대 후기인 19세기의 것이다.

9 현재 불상 하단에 일부 석재가 남아 있어 발굴조사를 거치면 대좌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10 이는 제작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 없다.



도 4 치인리 마애불입상의 신부



도 5 치인리 마애불입상의 수인

화된 우수한 조각기법을 보인다. 승기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승기지에는 2줄의 띠가 보이나 그 매듭은 왼손에 의해 가려져 있다. 승기지의 선단은 굽은 띠처럼 표현되었고, 통견의 선단도 마찬가지이다. 옷주름은 큰 U자형 주름이 전체 대의에 시문되어 있고, 균의에는 각 다리에 작은 U자형 주름이 있다. 왼쪽 어깨에는 한 줄의 띠와 매듭이 있고 그 아래에 삼각형의 옷주름이 이어지는데 왼쪽 팔목 위를 걸쳐 허벅지 부근까지 내려져 있다(도 4).

수인은 오른 손은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이면서 1, 3지 즉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왼손은 가슴 아래에 두고 손등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3, 4지 즉 중지와 약지를 구부리고 있다(도 5).

광배는 불신과 하나로 되어 거신형을 이루며, 원편 광배 폭은 오른쪽보다 좁고, 원형의 두광과 광배 전체는 무문이다. 치인리상이 있는 곳 좌우에 협시를 세울 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단독상으로 건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마애불상은 광배와 불신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단독여래입상인 점이

먼저 주목된다. 크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제작된 상으로는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도 6)과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등이 있다. 즉 광배와 불신이 한 돌로 이루어진 점이라든가 입상의 자세 그리고 수인 등에서 비교가 잘 되는 상이다. 그러나 치인리상은 무뚝뚝한 표정과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양감, 옷주름의 조각기법 등에서 이들 상보다는 늦은 시기의 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인리상의 제작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 비례, 양감, 얼굴 표현, 옷주름 표현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인리상은 전체 높이 750cm에 달하는 거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신체의 균형이 잘 맞으며, 넓은 어깨와 약간 들어간 허리는 다리의 굴곡이나 양감 있는 신체와 더불어 아



도 6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720년, 전체높이 275cm, 국보 82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름다운 모습이다. 아울러 왼쪽 어깨에는 삼각형의 옷주름 띠가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 상의 양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후한 양감과 달리 밑으로 갈수록 양감이 줄어들어¹¹ 골굴암 마애불상 등과 같이 신라하대 마애불의 특징이 나타난다. 신라하대의 불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상과 같이 시기가 내려갈수록 양감이 줄어들면서 특히 불신이 위축되는 경향이 특징이다.

다음은 얼굴표현으로 방형의 형태에 넓고 높은 육계, 큰 눈과 작은 입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거창 양평동 석조여래입상과 같이 아치형의 눈썹과 비교적 큰 눈의 표현에서 유사하다. 또한 작은 입이라든지 얼굴의 형태 등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비로자나불좌상과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남산 삼릉계 마애불좌상 등 신라하대의 불상 등과 비교된다(표 1).

이외에도 끝 단을 굽은 띠모양으로 처리한

표 1 얼굴 비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좌상	치인리 마애불입상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남산 삼릉계 마애불좌상

¹¹ 큰 상을 가까이서 올려다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신만을 더욱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 7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67년, 전체 높이 204cm, 보물 995호, 경북 봉화군

승지기 및 대의의 표현도 867년 작의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7)이나 예천 동본동 석조여래입상과도 상통한다.¹²

그런데 상의 왼쪽 어깨의 띠매듭과 삼각형의 옷자락은 법의 위에 편단우견으로 걸친 옷을 왼쪽 어깨에 고정시키는 띠로 매듭으로 묶고 그 자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다.¹³ 이와 같은 띠매듭과 삼각형의 옷자락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에는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대구 동화사 마애불좌상 등의 석불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약사여래입상 등의 금동불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후, 시대가 떨어지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좌상과 여주 대성사 석조여래좌상, 강원도 원주 출토의 철조약사여래좌상에도 표현되어

있고, 불상만이 아니라 승려상인 희랑조사 건칠상에서도 보인다.

이 왼쪽 어깨의 삼각형 옷주름은 시기마다 비슷해 보이지만 변화도 눈에 띈다. 즉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끈을 강조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된 반면, 치인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

표 2 왼쪽어깨의 띠매듭과 삼각형의 옷자락 비교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약사여래입상	치인리 마애불입상	동화사입구 마애불좌상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좌상

¹² 崔聖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高찰」, 『강좌미술사』26(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 218.

¹³ 성춘경, 『전남의 불상』(학연문화사, 2006), p. 85.

약사여래입상은 끈의 표현이 소략하고 오메가형 주름은 좌우 대칭으로 정렬되어 삼각형의 옷주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각형의 옷주름은 시기가 내려갈수록 더욱 강조되어 동화사 마애불좌상과 같이 점차 왼쪽 팔 바깥 쪽으로 치중되어 표현되고, 이러한 현상은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좌상과 여주 계신리 마애불입상과 같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이상과 같이 치인리상은 두부와 신부와의 이상적인 비례, 풍부한 양감과 높은 육계, 왼쪽 어깨의 삼각형 옷자락에 있는 고식의 주름과 화려하지 않은 광배 등의 특징을 보면 신라중대인 8세기대 불상의 특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대해진 불신과 짧은 코와 또렷한 인중, 근엄하며 무표정한 얼굴은 신라하대인 9세기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자세, 음각선으로 표현된 옷주름과 옷 선단의 띠 형태 등은 신라하대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왼쪽어깨의 띠매듭과 삼각형의 옷자락은 시기가 내려갈수록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치인리상은 신라중대의 특징을 계승한 하대의 불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성 신경리 마애불입상(도 8)과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등과 같이 한쪽 팔을 신체에 딱 붙인 경직된 자세와 정면으로 양쪽 귀가 펼쳐져 있는 비사실적인 표현,¹⁴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불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나말려초 시기의 불상보다는 제작 시기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인리상은 해인사가 창건되는 애장왕 3년(802) 보다는 시기가 떨어지는 9세기 중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도 8 홍성 신경리 마애불입상, 나말려초, 전체 높이 400cm, 보물 355호, 충남 홍성군

¹⁴ 하남의 태평 2년(977)명 약사마애불좌상을 비롯하여 월출봉 구정봉 마애불좌상과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좌상 등 시기가 떨어질수록 마애불상의 귀는 정면에서 두 귀가 모두 보이도록 펼쳐져 표현되어 있다.

Ⅲ. 치인리상과 신라하대 아미타불상의 수인

상의 수인은 앞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오른손은 들어서 1, 3지를 결하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게 하여 배 부근에 대고 자연스럽게 3, 4지를 구부리고 있다. 오른손을 들어 1, 3지로 결하고 있는 상은 신라중대보다는 하대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인이며 아미타의 구품인 중품하생 또는 하품중생에 해당되어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높다.¹⁵ 그러나 중품하생인(하품중생인)의 모습은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성립된 도상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미타상의 수인을 보고 발원자가 몇 품 몇 생의 왕생을 기원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¹⁶

그러므로 오른손을 들어 1, 3지를 결하고 있는 치인리상이 아미타불상인지 그 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 아미타상의 수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라하대 아미타불상 수인의 특징

통일신라시대의 아미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으로는 초기의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비상과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오른손을 들고 있으나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고, 후자는 오른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듯 하나 역시 수인은 분명하지 않다. 이후, 군위 삼존불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두고 있다. 또한 황복사지 금제아미타여래좌상은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있는 반면 굴불사지 서면 아미타상은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주 남산 칠불암 사방불의 서면상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양산미타암 아미타여래입상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1, 2지 즉 엄지와 검지를 결하고 있다(표 3).¹⁷

¹⁵ 만약 왼손도 1, 3지를 결하였으면 치인리상의 수인은 설법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왼손의 수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와 같은 수인은 다른 상에서도 볼 수 없어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인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¹⁶ 光森正士·岡田 健, 『佛像彫刻の鑑賞基礎知識』, 東京(至文堂, 1996), p. 36; 崔聖銀, 「張保皋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32(한국고대학회, 2010), p. 16, 주 27.

¹⁷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은 오른손을 들어 1, 2지를 결하고 있으나 4지 즉 약지는 구부리고 있다.

표 3 신라중대의 아미타불 수인

				
군위 삼존불 본존	황복사지 금제아미타여래좌상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칠불암 사방불 중 서면상	양산 미타암 아미타여래입상

아울러 전법륜인¹⁸의 안압지 출토의 금동삼존판불좌상(도 9)도 오른손은 1, 2지를 결하고 있어 아미타상의 수인은 실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신라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唐代의 용문석굴의 아미타불상 수인이 시무외 여원인에서, 향마촉지인, 전법륜인으로 변화되고 있어,¹⁹ 역시 아미타 수인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신라하대에 들어서면 정확하게 아미타상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²⁰과 실상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을 들 수 있다. 불국사상의 경우는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내린 상태에서 각각 양 손가락을 맞대고 있지는 않으나 1, 3지를 결하고 있다.²¹ 실상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는 1987년에 불상 복장에서 1, 3지를 결한 철제의 양 손이 발견되어 아미타여래좌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²² 1, 3지를 결한 수인은 신라

¹⁸ 전법륜인은 원래 석가모니 성도 이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불법을 전하는 석가모니의 수인이었으나 唐代의 도작(道綽 : 562-645년)은 二神論에서 석가는 아미타불로 나타난다 하여 진신은 석가모니이나 화신은 아미타불이라 하였다. 이는 화신인 아미타불이 석가불의 수인을 결할 수 있는 도상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법륜인은 아미타불의 수인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은, 『唐代 龍門石窟의 阿彌陀圖像變遷에 관한 一考察』, 『불교미술사학』3(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24-26.

¹⁹ 이정은, 앞의 논문, p. 24.

²⁰ 최영성은 「불국사 아미타불상찬」을 통해 불국사의 아미타불상도 주조불이 아니라 불화임을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불국사상이 아미타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불국사에 아미타화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각의 아미타상이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崔英成, 「崔致遠撰『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金銅毘盧遮那如來坐像·金銅阿彌陀如來坐像의 關係再論 -文明大 교수의 所論에 대한 반론-」, 『한국철학논집』20(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p. 232.

²¹ 불국사상은 왼손을 들고 있어 기존의 아미타상과는 반대이다. 불국사의 지권인비로자나불상도 반대로 수인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두 상은 모본을 보고 만들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²² 崔聖銀, 앞의 논문, p. 16; 文明大, 『實相寺金堂 發掘調査報告書』(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 1993), pp. 19-20.



도 9 금동삼존판불좌상, 통일신라, 전체높이 27cm, 안압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 58의 도 26)



도 10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전체높이 35.8cm, 안압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 186의 도 94)

표 4 신라하대의 아미타불 수인

불국사 금동아미타 여래좌상	실상사 철조아미타 여래좌상	치인리 마애불입상	남산 삼릉계 선각 육존마애불 중 여래좌상	남산 약수곡 마애불입상



도 11 진진사지 석탑 사방불 중 서면상, 통일신라, 강원도 양양군



도 12 진진사지 석탑 서면상 도면

하대에서 발견하기 어렵다하여²³ 고려시대 불상일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²⁴ 그러나 신라하대에도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마애삼존불 중 좌상의 본존과 경주 약수곡 마애불입상, 예천 동본동 석조여래입상 등은 오른손을 1, 3지로 결하였고(표 4),²⁵ 안압지 출토 금동여래입상(도 10)을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여래좌상 등의 금동불에서도 이와 같은 수인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하대에 이미 1, 3지를 결하는 상이 성행했음을 감안하면 실상사상도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아미타상²⁶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하대의 불상은 1, 2지를 결한 수인의 상보다 1, 3지를 결한 상이 더 많고, 이런 변화는 석탑 사방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릉 무진사 석탑 부재에 새겨진 사방불은 오른손을 들어 1, 3지를 결하였고, 양평군 지평리 석탑 사방불 중 남면 불상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양양 진진사지 석탑의 사방불 중 남면상은 왼손을 올려 1, 3지를 결하고 있는 반면 서면의 전법륜인상(도 11, 12)은 오른손이 1, 4지를 결하고 있어 전법륜인상의 수인도 하대에는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²³ 文明大, 앞의 책, pp. 19-20.

²⁴ 崔聖銀, 앞의 논문, pp. 15-17.

²⁵ 왼손이 1, 3지를 결한 불상으로는 경주 두대리 마애불의 본존과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등이 있다.

²⁶ 문명대, 「신라 철불 조성 문제와 실상사(實相寺) 철아미타불좌상」, 『한국의 불상조각 3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下)』(예경, 2003), pp. 138-140.



도 13 돈황석굴 328굴 주존불좌상, 唐 8세기 전반, 전체높이 219cm, 중국 감숙성,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2007, p. 227의 도 206)

따라서 아미타상의 수인은 대체로 중대에는 1, 2지를 결하였지만 점차 시기가 떨어질수록 1, 3지로 결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도 엿볼 수 있다.²⁷ 중국 초기의 아미타상들은 수덕사지 출토의 開皇 11년(591)명 석조아미타삼존상과 같이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있거나 永徽 원년(650)명 석조아미타삼존상의 경우와 같이 본존이 오른손을 들어 1, 2지를 결하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돈황석굴 328굴의 주존(도 13)과 일본 佐野미술관 소장의 금동불좌상,²⁸ 오사카 逸翁미술관 소장의 금동불좌상²⁹ 등 8세기 전반 이후로 가면서 점차 오른손을 들어 1, 3지를 결한 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른손을 들어 1, 3지를 결한 상은 신라 하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며 관경 변상도와 같은 불화에서도 같은 수인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아미타 수인은 통일신

라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1, 2지를 결하고, 신라하대부터 본격적으로 1, 3지를 결하는 상으로 전환되어 고려·조선시대에는 1, 3지를 결하는 상이 정착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치인리상도 1, 3지를 결한 아미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미타불상 수인의 변화

앞서 본 것과 같이 신라하대에는 불국사 아미타여래좌상과 실상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아미타상은 1, 3지를 결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아미타상이 시대에 따라

²⁷ 중국의 경우 대부분 수인이 결실되거나 보수된 것이 많아 그 예가 많지 않다.

²⁸ 전체높이 14cm이고 만당기의 작으로 추정하였다. 松原三郎, 『增訂 中國佛教彫刻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p. 295. 오른손 중지의 끝이 결실되었지만 결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왼손도 1, 3지를 결하고 있다.

²⁹ 전체높이 18cm이고 역시 만당기의 작으로 추정된다. 松原三郎, 앞의 책, p. 295.

³⁰ 고려시대 불화 중 西福寺 소장의 관경변상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인이 바뀌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³¹ 다만 불상의 수인 변화는 불교신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미타신앙과 관련된 경전은 주지하다시피 정토삼부경이라 하여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이 있다. 『무량수경』은 146~167년경에 성립되었고, 역경은 167~187년경에 행해졌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성립 후 100여년이 지나 편찬되었고, 『관무량수경』은 424~453년경에 번역되어 가장 늦게 성립된 경전이다.³² 중국에서 서방정토 왕생자를 『왕생전』과 『고승전』 등에서 정리해보면 남북조시대의 왕생자는 46명인데 비해 당대에는 74명으로 늘었고, 왕생을 위한 수행방법은 염불, 造像, 讀誦, 사경 등이 있다. 이 중 독송하여 왕성한 사례자의 경우, 독송대상의 경전으로 남북조에서 수대까지만 해도 『무량수경』이 있었지만 당대에는 『무량수경』의 예가 하나도 없는 점이 주목된다.³³ 이는 당대부터는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이 주를 이루며 정토신앙이 더욱 발전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왕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무량수경』의 제 18원에서 五逆者를 왕생에서 제외³⁴한 반면,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자를 왕생에 포함³⁵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관무량수경』이 더욱 독송 경전으로 각광을 받은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홍은 『무량수경』에서 오역자를 제외한 것은 상품상생을 위한 서원이고, 『관무량수경』에서 오역자를 포함시킨 것은 하품하생을 위한 교설이기 때문이라 하여³⁶ 통일신라시대에도 『관무량수경』을 통한 왕생자의 폭을 넓혀 설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혜일(慧日 : 630-748년)은 인도 유학 후, 719년에 당에 귀국하여 선종에 대해 선과 염불을 아울러 닦을 것을 강조하면서 선과 정토를 결합시킨 염불선의 원류가 되었고,³⁷ 이후 선종에서는 개인적인 염불, 독송 등의 수행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통일신라에도 이어져 현일과 원효, 의적이 모두 참회에 중점을 두고 오역자 등의 왕생을 허용하는 개방성을 보였고,³⁸ 아울러 8세기말 선종이 들어오면서 개인적

31 경전, 문헌 등의 기록에서는 수인을 1, 2지를 결한 상과 1, 3지를 결한 상의 차이점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불상과 사상과의 연관관계를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의 선행과제라 생각된다.

32 金英美, 『新羅 佛教思想史 研究』(民族社, 1994), pp. 23-24.

33 金英美, 앞의 책, pp. 37-41.

34 『佛說無量壽經』卷上(『大正新脩大藏經』12), p. 268a, “設我得佛 十方衆生至心信樂 欲生我國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 誹謗正法”

35 『佛說觀無量壽經』(『大正新脩大藏經』12), p. 346a, “或有衆生作不善業五逆十惡具諸不善 … 是名下品下生者是名下輩生想名第十六觀”

36 김양순, 『佛說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四十八願, 『불교학연구』18(불교학연구회, 2007), p. 313.

37 木村清孝 저, 朴太原 역, 『중국불교사상사』(경서원, 1988), p. 163.

38 정병삼,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사상적 경향』, 『불교학연구』9(불교학연구회, 2004), p. 157.

인 수행과 참선이 더욱 성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1, 3지를 결하는 불상이 많아지고, 이와 아울러 정토신앙이 발전되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수행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왕생자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정토신앙사상과 아미타상 수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⁹⁾

IV. 해인사와 제작 목적

지금까지 치인리 마애불입상은 9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아미타여래상임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쉽게 갈 수 없는 산 속 깊은 곳에 왜 단독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해인사와 관련하여 당시 시대, 정치적 정황을 살피고, 아울러 해인사가 화엄사찰임을 감안하여 그 사상을 통해 제작 목적을 유추해보기로 한다.

1. 해인사 관련 제작 배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치인리상은 해인사 경내 뒤쪽 가야산 중턱에 위치하므로 해인사와 관련된 상임을 알 수 있다.

해인사는 신라하대의 왕실이 지방에 세운 최초의 사찰로 하대 말기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아울러 최치원이 관직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은둔한 곳으로도 유명하다.⁴⁰⁾ 또한 해인사 애장왕 3년(802)에 애장왕의 祖母인 성목황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순응에 의해 건립된 화엄종 사찰이고,⁴¹⁾ 늦어도 현강왕 9년(883)에는 법보전에 목조비로자나불상이 안치되었다. 이후 현강왕 11년(885)에는 해인사 대덕인 결언과 현준이 중심이 되어 화엄결사를 행하였고,⁴²⁾ 정강왕대(886~887년)에는 정강왕과 공주 만(후의 진성왕)이

³⁹⁾ 『永泰二年銘 毘盧遮那佛造像記』에는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뜨도록 다짐한다(自毘盧遮那是木覺去世爲尔誓)” 고 하여 정토 왕생가능자의 대상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정토신앙 모습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⁴⁰⁾ 『三國史記』권40 列傳 제6 崔致遠條에 “... 最後 帶家隱伽伽耶山海印寺”라 하여 최치원은 857년에 태어나 효공왕 원년인 897년부터 은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金永斗, 『孤雲崔致遠』(民音社, 1989), pp. 177-178.

⁴¹⁾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제10 哀莊王條 “三年 八月 創伽耶山海印寺”, 崔致遠 撰 「新羅伽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聖穆王太后 母儀四夷 子育三學 聞風敬悅 誓日歸依 捨以嘉蔬 副之束帛”

⁴²⁾ 崔致遠, 『華嚴社會願文』, (韓國佛敎全書編纂委員 編, 『韓國佛敎全書』권4, 東國大學校出版部, 1982), p. 646.

주축이 되어 헌강왕을 위하여 화엄결사를 행하였다.⁴³ 진성왕 4년(890) 이후에는 해인사를 각간 위홍의 원당으로 칭하였고,⁴⁴ 동왕 9년(895)에는 해인사 인근에서 벌어졌던 전란에서 사망한 승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길상묘탑을 건립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해인사는 창건 때부터 신라하대말까지 꾸준히 왕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해인사는 헌강왕 4년(878)부터 진성왕 9년(895)까지 약 20여 년간에 걸쳐 막대한 토지를 집적하였다. 이 중 매매형식을 취한 왕실이나 귀족들로부터의 기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걸로 추정되어⁴⁶ 왕실로부터의 시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만큼의 재력을 갖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해인사의 寺勢와 재정적인 면을 감안하면 치인리상과 같이 거대 불상을 조성하는데 별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다만, 치인리상의 제작 연대 하한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헌강왕 말년인 886년에는 북방의 보로국과 흑수국이 신라와 화친하고자 한 사건으로 조정을 긴장케 했고,⁴⁹ 정강왕 2년(887)에는 한주의 이찬 김요가 반란을 일으켰다.⁵⁰ 또한 정강왕대 즉 진성왕 즉위 직전 왕실의 위태로움을 달걀을 쌓아 놓은 것에 비교되기도 하였고,⁵¹ 진성왕 2년(888)에는 왕의 정치를 비방하는 글이 떠돌았다.⁵² 이듬해는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나고

43 崔致遠, 『華嚴經社會願文』(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 編, 앞의 책), p. 647. 김복순은 이 결사가 해인사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金福順, 『新羅 華嚴宗研究』(民族社, 1990), p. 87. 반면, 최영성은 『삼국사기』권11 헌강왕 12년조에 헌강왕을菩提寺 동남쪽에 문었다는 기록을 통해 菩提寺로 비정하고 있다. 崔英成, 『解題 崔文昌侯全集』2(아세아문화사, 1999), p. 233, 주 87.

44 曹偉, 『書海印寺田券後』, 『梅溪先生文集』권6(啓明文化社, 1988), pp. 346-348.

45 崔致遠, 『海印寺妙吉祥塔記』,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85), pp. 167-168.

46 하일식, 『해인사전권(田券)과 고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24(한국역사연구회, 1997), p. 37.

47 이 시기에 해인사의 중수 및 원불 조성과 수보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조성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손영문, 앞의 논문, pp. 9-10.

48 해인사의 재정과 寺格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 거대 불상을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이유 외에도 일본의 헤이안(平安) 후기와 같이 불상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성불되거나 기원성취 된다는 생각이 신라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水野敬三郎 監修, 『日本佛像史』(美術出版社, 2001), p. 94 참조.

49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憲康王 12년조 “十二年春北鎮奏狄國人入鎮以片木掛樹而歸遂取以獻其木書十五字云 寶露國與黑水國人共向新羅國和通”

50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定康王 2년조 “二年 漢州 伊滄 金蕘 叛發兵誅之”

51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에 “難△祚之危危如果卵處處而煙塵欵起妖氣 …”라 하여 왕실이 위태롭기가 달걀을 쌓아놓은 것 같아 곳곳에 불타는 연기와 말 달리는 먼지가 갑자기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사회는 불안한 상태라 하였다. 송은일, 『眞聖王代』『三代目』의 修撰, 『역사학연구』27(호남사학회, 2007), pp. 95-96.

52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眞聖王 2년조 “時有無名子欺謗時政構碎 榜於朝路王命人搜索不能得或告王曰此必文人不得志者所爲殆是 大耶州 隱者 巨仁 耶王命拘 巨仁 京獄將刑之 巨仁 憤惡書於獄壁曰 于公 慟哭三年早 鄣行 含悲五月霜 今我幽愁還似古皇天無語但蒼蒼其夕忽雲霧震雷雨電王懼出 巨仁 放歸”

농민봉기가 일어나⁵³ 본격적으로 신라 왕권이 무너지는 등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상기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정강왕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작 목적

지금까지 치인리상은 비교적 신라하대의 안정기라 할 수 있는 9세기 중반경⁵⁴에 제작된 거대 불상으로 해인사의 많은 재원에 힘입어 제작된 아미타불상으로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그 제작 목적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상은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비상⁵⁵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⁵⁶ 등과 같이 추선 및 왕생을 기원하며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점차 시기가 내려갈수록 추선 및 왕생을 위해 아미타상뿐만이 아니라 영태2년명 비로자나불좌상⁵⁷과 방어산 약사마애삼존불⁵⁸ 등과 같이 다양한 존상들이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하대에는 경문왕 3년(863)에 민애왕을 추복하기 위해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하였고,⁵⁹ 883년경에는 대각간을 위하여 해인사 법보전에 비로자나불좌상이 안치되었

5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제11 眞聖王 3년조 “三年國內諸州郡不輸貢賦府庫虛竭國用窮乏王發使督促由是所在盜賊蜂起於是元宗哀奴等據”

54 진성여왕 2년까지는 신라 사회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진성여왕 3년의 농민봉기로부터 쇠퇴가 시작되었다. 권영오, 「신라 하대 중기(839~888) 왕위 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24(부경역사연구소, 2009), p. 182.

55 문무왕 13년(673) 4월 15일에 50인의 신도가 국왕, 대신 및 7세부모와 모든 영혼을 위하여 사원을 짓고, 석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癸酉銘全氏阿彌陀如來佛碑像記」(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96), p. 231 “癸酉年四月十五日今乃未首△△道△發願敬△供爲△弥次乃△△正乃未全氏三△△等△五十人知識共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發願敬造寺知識名記達率身次願眞武△△願 …”

56 성덕왕 19년(720)에 김지전(金志全) 즉 김지성이 국왕과 당시 정치실력자였던 개원(愷元), 부모 및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造像記」(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3권,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 299. “... 聖主無過三寶之因故奉爲國主大王伊滄愷元公亡考亡妣亡弟小舍梁誠沙門玄度亡妻古路里亡妹古寶里又爲妻阿好里等捨其甘山莊田建此伽藍仍造石阿彌陀像一軀伏願託此微因超昇彼岸四生六道並證菩提 …”

57 두운애량을 위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石南巖寺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p. 316.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釋法勝法緣二僧并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願爲石毘盧遮那佛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58 부자왕 즉 소성왕과 애장왕을 위하여 조성되었다. 「防禦山磨崖佛造像記」(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pp. 303-304. “成人弥奉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鴻嚴仏成記 願旨一父子王又△△王日弥二父母弥又一切衆生△”

59 「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p. 356. “國王奉爲敏哀大王追崇福業造石塔記若夫聖教所設利 …”

다.⁶⁰ 헌강왕 사후인 886년 이후에는 헌강왕의 비인 수원 권씨가 헌강왕을 위해 불국사에 비로자나불상과 문수, 보현보살상의 화상을 제작하였다.⁶¹ 또한 동시기에 전주대도독 김공을 위하여 불국사에 석가여래상반이 기진되는⁶² 등 하대에는 추선 및 왕생을 위해 아미타불상보다 오히려 비로자나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치인리상은 누군가를 위한 추선이나 왕생보다는 다른 제작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치인리상이 안치되어 있는 장소 및 단독상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즉 누구를 위한 추선의 제작이라면 굳이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안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한 왕생하여 극락에서 만날 수 있는 아미타삼존상의 형태가 더 알맞을 것이다.

치인리상이 위치한 가야산은 예부터 최치원이 가족을 데리고 은거한 곳이며 조선시대까지 수도처로 유명하였다.⁶³ 이러한 산의 중턱에 치인리상이 위치한 것을 보면, 수도·수행을 위한 불상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수도·수행을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예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⁶⁴과 포천산 석굴의 다섯 비구,⁶⁵ 포산의 2명의 성인⁶⁶ 등과 같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행은 화엄사상과 관련이 있고, 치인리상이 있는 해인사는 화엄사찰이다. 화엄을 전파한 의상은 화엄경의 주존인 비로자나불 대신 아미타불상을 독존으로 부석사에 모셨고, 부석사를 『관무량수경』에 기반하여 계단식 구조로 하여⁶⁷ 신라 화엄중에 정토신앙을 그 교리 체제 내에서 수용하였다. 이에 의상 스스로 정토신앙자로서 평생 동안 서쪽을

60 대각간과 그의 부인이 등신을 얻길 바란다는 뜻을 필자는 추선 또는 왕생의 의미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金昌謙, 앞의 논문, pp. 302-305 참조.

61 崔致遠 撰,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眞興王所鑄佛文殊普賢像讚并序」(姜裕文 跋文, 『佛國寺古今創記』, 慶北佛教協會, 1937), p. 11. “佛國寺光學藏 媛妃權氏落采爲尼法號秀圓亦名光學 講室左壁畫像者贈太傅獻康大王 … 修媛權氏法號秀圓追奉尊靈玄福之所 …”

62 崔致遠 撰, 「華嚴佛國寺繡釋迦如來像幡贊」(姜裕文 跋文, 앞의 책, 1937), p. 13. “故全州大都督金公 … 以成追福 唐僖宗中和六年丙午五月十日 敬繡釋迦牟尼佛像幡一幀 …”

63 『新增 東國輿地勝覽』제 30권 陝川郡條 “海印寺 … 古記云 伽倻山形絶於天下地德隻於海東眞精修之地”

64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처음에는 절을 짓고 처자식을 데리고 살았지만 성불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三國遺事』 권3 塔像 第 4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担担朴朴條 “遂唾謝人間世將隱於深谷”

65 『三國遺事』 권5 避隱 第 8 布川山五比丘景德王代條 “有布川山 石窟奇秀 宛如人斷 有五比丘未詳名氏 來寓 而念彌陀”

66 『三國遺事』 권5 避隱 第 8 包山二聖條 “羅時有 觀機 道成 二聖師不知何許人同隱 包山 鄉去 所瑟山 乃梵音此云包也 機 庵南嶺 成 處北穴相去十許里披雲嘯月每相過從”

67 부석사의 3개로 구획된 단은 상품, 중품, 하품에 해당되고, 각 단마다 셋으로 나눈 것은 상생, 중생, 하생을 의미하며 각 수행과정을 통해 극락정토에 이르도록 구조되었다고 한다. 鄭炳三, 「義相의 彌陀信仰과 그 社會의 性格」, 『韓國佛敎學』16(한국불교학회, 1991), pp. 147-148.

등지고 앉지 않고, 아미타불에 예배하였다.⁶⁸ 아울러 화엄 경전을 보면, 『60화엄경』의 賢首菩薩品에는 임종 시 염불을 권하고 존상을 보여주어 우리러 경배하게 하여 중생을 구제케 하는 건불을 강조하였고,⁶⁹ 『40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지, 독송, 사경하면 번뇌의 고향에서 중생들을 구제하여 모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끝맺고 있다.⁷⁰ 이를 다시 계승으로 읊어 “연화장세계에 나서 친히 무량광여래를 뵈면 그 자리에서 내게 깨달음의 수기 주시리” 라 하여⁷¹ 화엄의 佛刹인 연화장 세계에서 무량광 즉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엄경에서는 건불과 수지, 독송 등의 수행을 통해 아미타불을 만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상의 제자인 지통이 미리암 굴의 목각존상에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예를 통해 확인된다.⁷²

한편, 징관은 『華嚴經行願品疏』에서 아미타불은 곧 비로자나불이라 하여⁷³ 더욱 적극적으로 화엄과 미타신앙을 연결하였다. 그래서인지 일본 도쇼다이(唐招提寺)⁷⁴의 노사나불도 오른손을 올려 1, 3지를 결하고 있어 치인리상과 같은 아미타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엄사상에 의거해서인지 치인리상은 수행을 강조한 단독상으로, 또한 임종 시 존상을 우리러 보는 건불의 뜻을 반영하여 직접 내영하는 모습을 나타낸 입상⁷⁵의 아미타상으로 제작하였던⁷⁶ 것으로 생각된다.⁷⁷

68 無奇, 『釋迦如來行蹟頌』卷下(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 編, 앞의 책, 권6), p. 537. “坐不背西者 昔新羅義湘祖師 專求安養 平生坐不背西”

69 『大方廣佛華嚴經』60卷本 권7 賢首菩薩品 제 8(『大正新脩大藏經』권9), p. 437. “又放光明名見佛 彼光覺悟命終者念佛三昧必見佛 命終之後生佛前 見彼臨終勸念佛 又示尊像令瞻敬 又復勸令歸依佛 因是得成見佛光”

70 『大方廣佛華嚴經』40卷本 권40(『大正新脩大藏經』권10), p. 846. “受已能讀 讀已能誦 誦已能持 乃至書寫 廣爲人說是諸人等 … 能於煩惱大苦海中 拔濟衆生 令其出離 皆得往生阿彌陀佛極樂世界”

71 『大方廣佛華嚴經』40卷本 권40(『大正新脩大藏經』권10), p. 848. “彼佛衆會咸清淨 我時於勝蓮華生 親親如來無量光 現前授我菩提記”

72 均如, 『釋華嚴教分記圓通鈔』卷下(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 編, 앞의 책, 권4), p. 139. “新羅僧智通 乃相德十聖弟子之一也 居大伯山彌理岩穴 修花嚴觀 忽一日見大猪 過穴門及通 依常禮木刻尊像 盡其誠懇 …”. 목각존상의 존명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의상대 활동했던 것으로 보아 스승인 의상의 영향으로 아미타불일 가능성은 높다.

73 金知見, 「新羅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學術院論文集』12(대한민국학술원, 1973), pp. 55-56.

74 당의 승려 감진(鑑眞 : 688-763년)에 의해 나라(奈良)에 건립되었고, 여기의 노사나불은 8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중국의 조각 양식에 영향 받은 것이라 한다. 박형국 외, 『동양미술사 하권』(미진사, 2009), p. 59.

75 『觀無量壽佛經義疏』卷下(『大正新脩大藏經』권3), p. 294에는 “佛立空中二聖侍立 三聖立像斯爲明據”라 하여 아미타가 내영할 때 서서 나타난다 하였다.

76 『浮石寺圓融國師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編, 1919), p. 271. “一乘阿彌陀 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者 充滿諸法界 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 故△△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라 하여 의상은 아미타는 열반에 들지 않아 비는 때가 없으므로 보처보살과 영탑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 화엄사상에서는 실천신앙으로 정토신앙을 반영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비로자나불은 곧 아미타불이라는 사상이 이어져 치인리상과 같은 단독입상의 아미타불상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이 깊은 산중에서 해인사를 향하고 있는 것은 해인사의 수행을 상징함과 동시에 중생구제를 위한 염불, 수행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치인리상은 당시 실천 신앙의 불상 형태를 보여주는 상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이 상이 가지는 의의이기도 하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치인리 마애불입상의 형식, 양식고찰을 통한 제작시기 및 존명과 당시 해인사 관련 배경을 통해 제작 목적을 살펴보았다.

치인리상은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은 양감이 거의 없고, 엄격한 상호, 음각선의 섬약한 옷주름 등의 특징으로 미루어 신라하대 9세기 중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른손을 들어 1, 3지를 결하는 중품하생인의 아미타상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아미타구품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상들의 수인을 비교 고찰하여 그 존명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아미타상은 초기에는 주로 오른손은 1, 2지를 결하지만 시기가 내려갈수록 1, 3지를 결하는 상이 많아지고,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실상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통해 치인리상은 아미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하대의 대표 화엄사찰인 해인사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깊은 산 중턱에 단독입상으로 제작된 목적은 의상의 정토신앙과 결합한 화엄사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60화엄경』의 견불사상과 『40화엄경』의 독송, 수지 등의 수행을 통하여 아미타여래를 만나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사상이 근원이 되어 수도처로 용이한 곳에 내영하는 단독의 입상으로 치인리상이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신라하대의 화엄사상은 선종이 들어와 불교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천신앙으로써 정토신앙은 변함없이 이어갔다. 이는 중대부터 정토신앙이 화엄과 결합된 이유도 있지만 수행을 강조한 선종과도 정토신앙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을

⁷⁷ 의상 화엄종 소속의 사원들 역시 부석사와 같이 아미타를 독존상으로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18(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7), p. 46.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반영 결과가 치인리상과 같은 단독의 아미타여래입상이라 할 수 있고, 당대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불상이 많은 것도 하나의 시대적 신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_치인리 (chiin-ri), 마애불입상 (standing rock-cliff Buddha), 아미타불상 (Sculptures of Amitabha Buddha), 해인사 (Haeinsa Temple), 화엄종 (Huayan Buddhism), 수행 (ascetic practices), 의상 (Uisang)

■ 투고일 2012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2년 3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24일 ■

참고문헌

1.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正新脩大藏經』
『韓國佛教全書』
『釋華嚴教分記圓通鈔』

2. 저서

金英美, 『新羅 佛教思想史 研究』, 民族社, 1994.
文明大, 『實相寺金堂 發掘調査報告書』,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 1993.
박형국 외, 『동양미술사 하권』, 미진사, 2009.
성춘경,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李智冠 編著, 『伽倻山 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曹偉, 『梅溪先生文集』, 啓明文化社, 1988.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96.
崔英成, 『解題 崔文昌候全集』, 아세아문화사, 1999.
한국불교연구원, 『海印寺』, 일지사,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3권,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松原三郎, 『增訂 中國佛教彫刻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3. 논문

권영오, 「신라 하대 중기(839~888) 왕위 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金南允,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1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7.
김양순,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四十八願」, 『불교학연구』18, 불교학연구회, 2007.
金知見, 「新羅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學術院論文集』12, 대한민국학술원, 1973.
문명대, 「신라 철불 조성 문제와 실상사(實相寺) 철아미타불좌상」, 『한국의 불상조각 3 통일신라 불교 조각사 연구(下)』, 예경, 2003.
손영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 송은일, 「眞聖王代『三代目』의 修撰」, 『역사학연구』27, 호남사학회, 2007.
- 李文基, 「崔致遠 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新羅文化』26, 신라문화연구소, 2005.
- 이정은, 「唐代 龍門石窟의 阿彌陀圖像變遷에 관한 一考察」, 『불교미술사학』3, 불교미술사학회, 2005.
- 鄭炳三, 「義相의 彌陀信仰과 그 社會的 性格」, 『韓國佛敎學』16, 한국불교학회, 1991.
- 崔聖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의 고찰」, 『강좌미술사』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 _____, 「張保皋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32, 한국고대학회, 2010.
- 崔英成, 「崔致遠 撰 「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佛國寺阿彌陀佛像讚」과 불국사 金銅毘盧遮那如來坐像·金銅阿彌陀如來坐像의 關係再論 -文明大 교수의 所論에 대한 反론-」, 『한국철학논집』20,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 하일식, 「해인사전권(田券)과 묘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합천군 치인리의 해인사 뒤편 가야산 중봉에 있는 마애불입상의 제작시기와 제작 배경, 목적을 밝힌 것이다.

치인리상은 감산사 아미타상과 같이 불신과 광배가 하나의 돌로 제작되어진 단독여래입상으로 감산사상과 같은 형식의 아미타상으로 추정되지만 감산사상의 오른손 수인은 1, 2지를 결하고 있는 반면 치인리상은 1, 3지를 결하고 있어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먼저 상의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여 그 제작시기를 살펴보고,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상의 수인을 살펴서 치인리상과 관련한 아미타상 수인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치인리상은 두부와 신부와의 이상적인 비례, 상반신의 풍부한 양감, 왼쪽 어깨의 삼각형 옷자락에 있는 고식의 주름 등 신라중대 불상의 특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비대해진 불신과 짧은 코, 또렷한 인중과 무표정한 얼굴, 음각선으로 표현된 약한 옷주름과 굽은 띠형태의 옷 선단 표현 등은 신라하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제작시기는 9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아미타불상 중 중대 불상은 오른손이 1, 2지를 결하지만 하대에는 1, 3지로 결한 상이 많아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어 이는 정토불교 사상의 변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아미타상은 주로 추선 및 왕생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하대에는 추선 및 왕생을 목적으로 비로자나불상이 많이 제작되었고, 치인리상이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점으로 볼 때 그 제작 목적은 수도 및 수행을 위한 상이었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수도 및 수행을 위해 산 속 깊이 들어간 예가 많고, 특히 치인리상이 있는 가야산은 예로부터 수도처로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인리상이 있는 해인사는 화엄사찰이고, 화엄사찰에서는 특히 화엄사상에 의해 수도 및 수행을 위해 아미타불을 예배하였다. 그 이유는 의상은 수행을 위해 평생 아미타독존불에 예배하였고, 화엄경에는 건불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인리상은 건불의 뜻을 반영하여 직접 내영하는 모습의 입상으로, 또 의상의 뜻을 이어받아 단독의 아미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The Late-Silla Standing Rock-cliff Buddha of Chiin-ri, Hapcheon

Ji Kang-yi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n the standing rock-cliff Buddha located in Jungbong Peak of Gayasan Mountain (Chiin-ri, Hapcheon-gun, Gyeongsangnam-do), upslope from Haeinsa Temple, was created and to establish the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its cre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hiin-ri Buddha is a late Silla sculpture inheriting the stylistic tradition of mid-Silla and dates its creation to sometime in the mid-9th century.

While Amitabha Buddha sculptures from the mid-Unified Silla period most often have the thumb and index of the right hand touching each other, those from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tend to have the thumb and the tall finger touching each other; a detail believed to reflect certain changes in the belief system of Pure Land Buddhism.

The Chiin-ri Buddha, given its location in a remote mountainous area and Gayasan Mountain's reputation as a spiritual retreat site, was probably a statue created for those who came there seeking spiritual growth.

Meanwhile, the reason why a sculpture of Amitabha Buddha was created at a retreat site should be looked for in the Huayan doctrine of Buddhism. First of all, Haeinsa was a temple of Huayan Buddhism, and in the Avatamsaka Sutra, the main scripture of this Buddhist denomination, the faithful are urged to attain enlightenment by becoming reborn in the Western Paradise of Amitabha Buddha and seeing Amitabha with one's own eyes. Hence, there seems to be ample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Chiin-ri sculpture of Amitabha Buddha was created for Buddhists visiting this area on a spiritual retreat.

* Lecturer of Art History at Dong-A University